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3/4월호
2015년

Email: VoiceOfNM@gmail.com



4월에 피는 뉴멕시코의 야생화 Stemless Evening Primrose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곁에 어느새 만물이 소생하는 3월 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지난2년간 뉴멕시코주 한인회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안고 열심히 봉사했지만 뒤돌아보면 아쉬운점도 많습니다. 그동안 한인회장으로서 무사히 임무를 수행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인회 여러분들과 특히 한글학교 선생님들 및 학생들과 부모님들, 한인회 어버이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인회의 활동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국의 발전에 함께 동참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2월28일한인회관에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봉사할 새회장선거가 있었으며, 김영신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16대 한인회 김영신회장과 새임원들께 따뜻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새로운 희망과 행복들이 가득한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발전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2015년3월 9일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조규자 배상



2015년 3/4월호 내용

- 표지 | 한인회장인사 : 1
- 한인회소식 | 회장선거발표 /KOWIN 세미나 : 2
- 생활정보 | 행복한 미국생활 : 3
- 수필 | 말 - 역동적인 동물 | 이정길 :6
- 영화소개 | Ode to My Father(영화:국제시장) : 8
- 법률상식 | 한국법 가이드 / 상속과 유언 : 9
- 성경상식 |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곳과 시내산..|유진웅: 11
- 특별기고 | 초기 선교사들의 희생|최건영: 13
- 성경 | 사순절 기간 말씀 묵상 :15
- 크리스천헤럴드 전재 | 한미침례교회 윤성열목사 :16
- 광고 | 뉴멕시코 교회안내 :17
- 광고 | 뉴멕시코 한인업소 안내 :18

일일 순회 영사 업무

회원 여러분께 E-mail로 미리 연락해드린바와 같이
 라성 총영사관에서는 교민 여러분을 위하여 한인회관에서 지
 난 3월12일 일일 순회영사 업무를 제공했습니다.

한인회장 선거 발표

뉴멕시코 한인회 선거 관리 위원회는 2015년 2월 7일 선거
 공고문을 발표하고 2월 19일부터 입후보 등록을 접수한 결과 2
 월 24일 입후보자로 박순삼(朴順三),김영신(金英信),민명희(閔
 明姬)세분을 공고하였고 2월 28일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민명희 후보의 사퇴로 박순삼후보와 김영신 후보의 경선으로 2
 월28일 선거를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투표율이 예년보다 훨씬
 향상되어 99명의 정회원이 투표하였고 개표결과 김영신 51표,
 박순삼 47표, 무효 1표로 김영신(金英信) 후보가 제16대 차기
 한인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제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입후보 여러분과 한인 회원여러분께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를 드립니다. 당선되신 분을 축하해 주시고 더 좋은
 한인회를 만들어 가는일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 한인회 선거 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이경화 드림
 (위원: 김준호, 박창규, 김길자, 조한욱)
 2015년 2월 28일



선거를 마치고. (왼쪽에서)조규자회장, 김길자이사, 임낸시부회장, 김영신
 이사(당선자), 이경화전회장, 박창규이사, 조한욱이사, 김준호전회장.



투표장 접수테이블: 김철 회원(참관인)과 조한욱이사, 김길자이사

코윈 뉴멕시코 세미나 KOWIN New Mexico Seminar



LEADERSHIP 이란?

오래전 정의에서 여성리더십까지

2015년 3월 21일 (토) 10 AM
 Bear Canyon Senior Center
 Room #5
 4645 Pitt St. NE, Albuquerque, NM
 (유뱅크 + 몽고메리 근처)



강사: 이정길 교수님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1963)
 육군통역장교 제11기 (1963 - 67)
 호주 James Cook 대학교 박사 (1978)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1971 - 2007)
 현재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KOWIN
 Korean Women's Organization of New Mexico
 연락처: 505-321-7274
 505-991-2160



한인 회관에서 투표 하시는 조규자 회장



개표하는 박창규이사와 선관위원과 참관인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편집부)

1-1 만남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교우를 소개합니다. 삼페인어바나 한인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시카고 한인교회 지역으로 이사 오신 강연오/이세오 성도님 가정입니다.” 담임 목사의 소개 말쑤에 설교 시간부터 졸고 있던 이견우는 깜짝놀라 뒤를 쳐다 보았다. 강연오. 그 잊을수 없는 이름, 둘다 전래 동화 주인공 같은 이름때문에 학창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냈던 공부 잘하던 친구의 이름.



“야 이거 도대체 몇년만이나. 우리가 서로 멀지도 않은 곳에 있었구만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견우는 고등학교 졸업후 전문대학에 입학했다가 적성이 맞지 않아 방황하다가 세탁소를 하나 차리고 몇년을 일했다. 아내 김직녀는 재봉사 기술을 배워 남편의 일을 도왔다. 그러나 아파트촌 주위에 기업형 컴퓨터세탁소가 들어오면서 매출이 줄어 고민하던중 제 2의 인생을 꿈꾸며 먼친척이 살고 있던 시카고로 이민와 이제껏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삼페인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공대로 유명한 일리노이 주립대학은 시카고서 차로 세시간거리의 캠퍼스타운 삼페인에 있다. “말도 마라. 공부한다고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미국 나와서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것 얘기하자면 며칠을 밤새야 할거니까.” 강연오의 고백에 이견우는 고개를 갸웃한다. “아니 왜. 미국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쉽게 영주권 주던데. 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잖아. 말은 니가 말아야지. 나야말로 맨땅에 방문비자로 미국 들어와 그동안 신분 유지하느라 어학원 다니고, 세탁소한다고 끙끙대다가 아내를 통해 영주권 받은 얘기 하자면 끝이 없지.” 두사람은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한 서로의 얼굴과 옆에 선 예쁜 아내와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 보면서 반가운 웃음소리를 연신 터뜨린다.

전문가의 한마디 이민 오딧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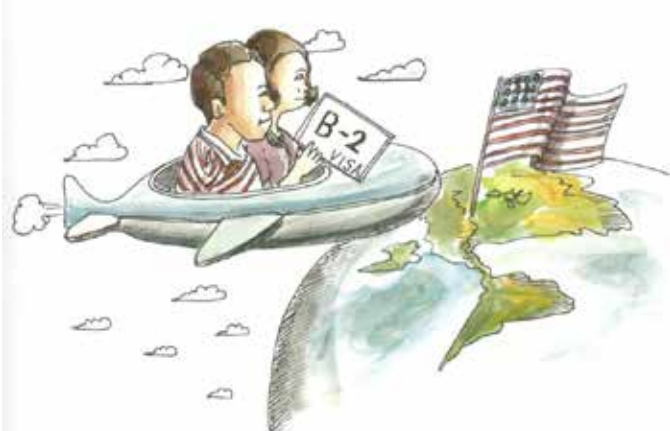
앞으로 이견우와 강연오 두 주인공 가정과 그 주변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미국에 들어와 자리 잡는데 필요한 비자와 이민,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교과서에 적힌 딱딱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보를 일상의 언어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루칼라출신 이민자를 상징하는 이견우가족과 화이트칼라 출신 이민자를 대표하는 강연오의 이야기가 다채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주로 케이스 법이 적용되는 판례법국가인 미국의 다른 법률분야와 달리, 사실 한국법 시스템과 매우 유사합니다. 한국이 따르는 이른바 대륙법 시스템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 그리고 그해석을 담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사회가 운영됩니다. 미국이민법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미국이민절차는 수학문제의 정답찾기가 아닙니다.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해당 조항을 잘 분석하여 그 한계 안에서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을 해내면 때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결론도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 이민법입니다. 이민 심사관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매사가 그렇지만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학력이 높은 닛든, 미국이민을 결정하여 적절한 비자를 찾고 결국 영주권에 이르며,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이민자들 삶의 기록은 그리하여 그리스의 오디세우스 (Odysseus) 가 트로이 전쟁후 귀향하기 전에 10년을 방랑하면서 겪은 모험담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이들 가족의 방랑담을 어떤분은 정보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어떤분은 이민생활을 회고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2 이견우의 미국방문 (B-1/B-2비자)

견우는 세탁소가 너무 안되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에 눌러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만 같았다. 제2의 인생을 외국에서 펼쳐보고 싶었다. 전세금과 모아둔 돈을 다 털면 한 2억정도 되었다. 한 8촌쯤 되지만 교류가 있는 친척이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곳저곳서 미국 이민정보를 알음알음 확인하였다. 먼저 방문 비자로 미국에 들어가 그 후에 다른 비자로 바꾸어 살수 있다는 얘기였다. 방문 비자를 받기 위한 줄은 길기만 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영사는 왜



미국에 방문하느냐고 물었다. 당연히 관광을 위해 받는다고 하였다. 다행히 비자가 찍힌 여권을 택배회사를 통해 받았다.

가까운 몇 친구는 그를 말렸다. “이제 미국사회도 예전같지 않다더라. 이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들어간 사람들이 조금만 고생을 해도 좋은집 사고 좋은차 몰고 애들 교육까지 잘 시켰는데,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많이 따라오며 발전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살기에 좋은 점도 생기고, 무엇보다 나이먹어 통하지도 않는 영어 어떻게 하며 살려고 하니?” 친구들의 만류를 뒤로 하고 이견우와 김직녀는 두아이와 함께 시카고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전문가의 한마디 무비자세대와 이민트렌드

2000년 이전에 들어온 이견우씨는 비록 비자 인터뷰를 위해 긴줄을 서더라도 결국 어렵지 않게 방문 비자를 받았지만, 2008년 부터 시작된 ESTA 전자 여행허가 제도의 도입으로 미국 방문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비자 제도로 인해 일반 여행자의 미국방문은 대사관을 들릴 필요없이 아주 간단해졌지만, 역설적으로 이제는 이전방식의 방문비자 (B-1/B-2)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로 미국을 입국하는 경우, 미국 체류일은 최장 90일을 받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를 미국내에서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로 미국체류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들어와 신분을 변경하고 장기 체류하거나 아예 영주권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족의 B-1/B-2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문비자 받기가 어려워 지면서 미국에 들어가 무언가 다른 비자나 영주권을 도모하는 사람은 다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상 남은 것은 학생비자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어학원 등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학생비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20대 초반 이하의 일반적인 학생이 아니라 30대가 넘어 공부하려고 미국에 간다고 하는 경우 게다가 온 가족이 미국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는 대사관의 심사가 당연히 까다롭습니다. 다만 한국에 다니는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휴직하였거나 재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면 비교적 쉽게 학생비자를 받기도 합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나 아니면 자녀가 미국시민권자라서 미국에 들어온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부모의 경우 정도를 제외하면 90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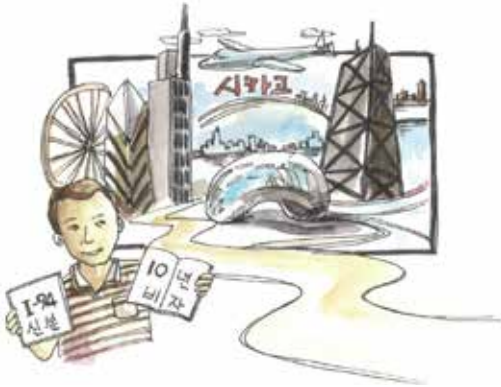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70-80년대와는 달리, 최근의 이민자들은 이미 한국에서 어느정도의 부와 문화생활을 누리던 편이라서 미국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갖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계 미국이민자수는 많이 줄어들것이라는 예상이 맞습니다. 미국에서 일본계 이민자수가 격감하고 있는 흐름을 한국도 따라갈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구가 우리의 3배인 일본의 최근 미국이민자수는 한국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민자 트렌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1-3 시카고 오헤어공항 (visa 와 status)

“오헤어 공항의 이민국 심사관 무지 불친절했지. 그제 내 미국에 대한 첫 인상이야. 시카고로 놀러 온다는데 마치 이 추운 시카고에 뭐 볼게 있냐는 식으로 통통대는 느낌이었던니까. 아마 아침에 부인과 부부싸움이라도 했던 모양이야.” 며칠뒤 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견우는 연오에게 미국 이민 초창기 시절 이야기를 틀어 놓았다. “이민사회에 이런 말이 있지, 처음 미국공항에 내릴때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에 따라 이민자의 삶이 결정된다고,” 견우는 원래 하던 일도 세탁소였으니 아마도 비즈니스를 하게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겠지만, 오랜 숙설이 결국 맞았던 셈이기도 하다.

시카고는 오랫동안 뉴욕에 이어 미국에서 두번째 큰 도시이다가 현재는 엘에이(LA) 다음으로 대략 인구 1,000만명이 살고 있는 미국내 세번째 큰 메트로폴리스지역이다. 이민자와 히스패닉인구 비율이 높은 엘에이와, 모든 인종의 전시장 같은 뉴욕에 비해 비교적 미국내 중산층 백인이 많이 거주하는 시카고는 가장 미국같은 대도시라는 평을 듣는다. 시카고의 관문인 오헤어국제공항은 한때 전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이기도 하였다.

“내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말이야, 내 방문비자가 10



년짜리였거든, 그런데 I-94라는 하얀색 출입국카드에 심사관이 입국일부터 6개월을 찍어준 종이를 공항에서 나와 발견하고선 비자기간에 맞게 고쳐달라고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주위에 물어봤다니까.” 견우의 말에 함께 웃음을 터뜨린 연오가 말을 잇는다. “요즘은 그 하얀색 I-94 라는게 없어 졌다면서,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들이 세관신고서류만 준다더라.” 2013년부터 미국이민국은 모든 I-94 출입국 서류제도를 모두 전산화 하면서 더 이상 여권에 I-94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 주게 되는데, I-94카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온라인 시스템에 들어가 프린터 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의 한마디 비자와 신분

많은 이민자들에게 상식으로 알려진 개념이지만 아직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이민법의 가장 중요한 용어 하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 무지가 미국에서의 체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비자 (visa) 라는 용어입니다. 이민자 한분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했는데, E-2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질문 자체가 개념상 맞느냐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취지를 모르지는 않지만 굳이 말하자면 비자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질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체류신분 (status)만을 변경할 수 있을 뿐, 비자 (visa) 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비자 발급업무는 전적으로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소관입니다. 비자와 체류신분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 이민국 심사관에게 보여주는 여권에 찍힌 스탬프이고, 체류신분은 비자를 보여 주고 입국심사를 통과할 때 받는 신분을 말합니다. 결국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고, 입국한 다음 부터는 비자가 아닌 신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컨데 학생비자로 입국한 위 이민자의 경우 현재 학생신분으로 있는 것이며 투자로 인해 E-2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분변경은 구체적으로 바뀐 신분과 체류기간을 적은 새로운 I-94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체류하던 E-2 신분자가 E-2 비자를 얻는 때는, 한국에 여행등으로 나간 뒤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미국에서 바뀐 신분에 해당하는 투자비자가 없이 예전의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체류신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분의 유효기간이 여권에 적혀 있으니 그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그 신분의 취지에 맞는 행위를 하는 한해서만 체류신분이 유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권에 명기된 체류기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불법체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한국에서 5년짜리 E-2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 올때 심사관이 I-94상에 체류기간을 2년 적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가 심각하게 어려워져 6개월만에 사업체를 매각한 뒤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길동씨의 체류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비자가 5년짜리이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해외여행을 해도 그 기간동안에는 또 다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2년짜리 출입국증서를 받았으니 앞으로 1년반은 신분에 문제가 없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 신분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 유지되는 신분이므로 현재 홍길동씨는 비록 비자가 체류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out of status)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예컨데 학생비자신분 (F-1) 도 마찬가지입니다. I-20 날짜를 연속해서 유지해야 하고 풀타임학업을 계속하여 SEVIS 시스템에 이름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E-2 신분자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민국이 바로 알아 차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2년의 신분이 종료하기전 한국에 돌아 가지 않는 한 연장이나 변경신청을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데 그 2년동안의 서류관련 서류등을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결국은 이민국이 알게 됩니다.

얼마전 목사님 한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5년짜리 종교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 들어올 때 받은 R-1 신분이 2년정도 지난 올해 말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전혀 의심의 여지없이 연장신청은 비자가 끝나는 3년후에나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실은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아직도 많을까 싶어 이 글을 적습니다. 혹시 방문 비자가 10년짜리니까 여권에 적힌 6개월과 상관없이 현재 5년째 방문자 신분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믿고 지내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조. (다음호에는 학생비자변경, 노동허가에 관한 안내로 계속)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간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 양장피 잡채 \$17.95

말 - 역동적인 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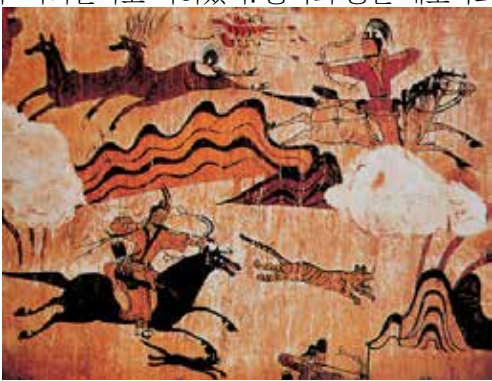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말 하면 우리는 자연 늘씬한 준마가 갈기를 곧추세우고 달리는 모습을 연상한다. 말을 타고 동북아시아를 호령했던 고구려인의 기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벽화 ‘수렵도’는 온갖 어려움을 이기면서 곳곳이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느끼게 한다. 다리 목 얼굴이 길고, 목덜미에서 등까지 갈기가 나 있으며, 꼬리는 긴 털로 덮여있는 말. 1.7미터 어깨높이에 몸의 길이는 2미터에 이른다. 말은 ‘뛰다’라는 낱말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자신의 등에 인간을 태우고 ‘쾌주’와 ‘도약’을 맛보게 해 주는 유일한 동물이다.

개 다음으로 빨리 가속화한 말은 교통 군사 문화의 동반자로서 인류와 함께 해왔다. 한반도에도 구석기 시대부터 존재하면서 신화를 창조하기도 했다. 황제 출현의 징표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신화책 <삼국유사>에는, 여느 사람과 달리 제왕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징표가 나타난다고 적혀있다. 중국의 성인 태호복희씨의 천손하강은 하늘을 나는 천마의 하강으로 예고되었고, 신라 박혁거세의 천손하강은 하늘로 날아올라간 천마로 예고되었다. 그리스 신화에는, 영웅 벨레로폰이 불을 뿜는 괴물 키마리아를 죽이는 데에 자유자재로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 말을 타고 사냥하는 장면. 하늘을 난 천마



페가수스가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날개 달린 천마는 옥황상제가 타고 하늘을 달리는 신성한 동물이었다. 말은 곧 하늘이고 태양이었으며 남성이었다. 혼인할 때 신랑은 백마를 탄다. 민간에서는 무신武神으로 여겨 나무나 쇠로 말의 모형을 만들어 수호신으로 모셨다. 고래로 기마병은 전투를 승전으로 이끈다고 알려졌다. 말은 그밖에도 여러 가지로 이용되었다.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는 수레를 끌었다. 논밭을 가는 데도, 사냥에도 쓰였다. 조선시대에는 공문을 급히 보내려고 곳곳에 역참을 두었다. 역참에는 역말을 관용으로 갖추어 두고, 먼 곳까지 가려면 갈아서 타기도 했는데 그때 타는 말을 파발마라고 불렀다.

전쟁이 나면 말들이 수난을 당했다. 치열한 전쟁 도구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몽고 제국의 시조 징기스칸은 13세기에 말을 이용하여 아시아의 태반과 동부 유럽을 정복했다. 1815년 워털루 대회전에는 3만 마리의 말이 기병을 태우거나 보급품 또는 대포의 운반에 이용되었다. 그때 나폴레옹이 탄 말 스무 마리가 죽었다는 기록은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가늠하게 해준다. 그 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말은 무려 150만 마리였으며, 그 1/3이 부상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굶어 죽었다.

말은 빠르고 다혈질이다. 말띠 사람들은 강직하고 열정적이며, 활동력이 강하고 매사에 적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머리가 좋고 재주가 있어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남자아이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여성에게 신사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사랑 받는 운명을 타고난 젠틀맨이 될 수 있다. 여성은 방송계나 예술계 또는 체육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소질을 가지며, 운세가 남자에 비하여 더 좋을 수도 있다. 화려한 열정을 품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될 수도 있다. 말띠 사람은 추진력이 강한 데다가 화끈하고 뒤끝이 없지만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한다.

자동차의 이름에 말이 사용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자동차회사 현대에서 생산하는 에쿠우스는 말의 학명 Equus caballus 에서 따온 것이다. 포드자동차회사에서 생산하는 무스탕은 미국의 평원에서 사는 야생마의 이름이다. 무스탕은 인디언들이 버팔로를 더 잘 사냥하게 해주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사는 데에 필요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원주민들의 문화를 바꿔놓은 동물이다. 옛적의 일이라지만 야생마는 인디언들에게는 지금도 아주 중요한 동물인 것이다.

구두를 신는 유일한 동물이 말이다. 충격을 줄여 발굽을 보호해주는 말의 구두 편자는, 경주마에게는 달릴 때 미끄럼을 방지해주고 속도를 내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화덕의 불에 달궈진 쇠를 망치로 두들겨 타원형 편자를 만든 다음, 큰 칼로 가지런하게 깎은 발굽에 쇠못으로 고정하는 오래된 직업을 장제사라고 한다. 얼마 전부터 규격품이 나와 얘기가 달라졌지만, 8.15광복 직후에는 한 마리 장제비가 쌀 다섯 가마 값이었으니 별이가 좋았던 때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편자만들기 대회가 열린다. 현대의 사람을 옛날 옛적에 있었던 직업과 연결시켜주려는 목적으로 2007년에 텍사스에서 시작된 이 대회에서는 12분 이내에 쇠덩이를 완벽한 편자로 버려야 한다. 일 대 일로 시합하며, 경합은 치열하다. 해마다 주를 바꿔가며 개최되는 이 대회는 2004년에는 뉴멕시코 주 옛지우드에서 10월 24일부터 26일에 치뤄졌다. 세워두었다가 시동만 걸면 다시 굴러가는 자동차와는 달리, 먹이고 재우고 손질해주고 병이 나면 치료해주어야 했던 교통수단 말은 수의학학을 낳은 동물이기도 하다.

말은 어느 사이 애완 동물이 되었다. 가까이 두고 다루거나 보며 즐기기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해서 부자들의 애완용이며, 올림픽의 마술 경기에도 이용된다. 경마장에서는 주역이다. 영국 왕실의 의식에 빠짐없이 나타나고,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운구를 맡는다. 싸움을 모방한 놀이 기마전에 참가하고, 기마대에서 경찰의 직무 수행을 돕는다. 그밖에도 대규모 목장에서 소떼나 양떼를 몰이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다. 십여 년 전 울란바토르에 한 주 동안 머물면서 말을 타고 에텔바이스가 피어 있는 테를지 공원을 돌아보고 게르에서 징기스칸 요리도 먹어보았다. 거기서는 주식으로, 말고기를 구워서도, 탕으로도, 회로도 먹고 있었다.

‘항우의 오추마’ ‘여포의 적토마’는, 흔히 명마가 명장과 함께 일컬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말은 사람의 욕심에 끝이 없다는 뜻으로, 미리 조심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탄도치마坦道馳馬는 탄탄대로를 말 타고 달리는 호팔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Ode to my Father (영화: 국제시장)

Wikipedia(위키피디아:영문 위키백과)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국영화 'Ode to my Father'를 한국말로 번역 하고 요약해서 소개한다.(편집부)

'Ode to my Father' 를 직역하자면 '내 아버지께 바치는 송시(頌詩)'라 할수 있다. '송시'보다는 의역을 해서 '헌시(獻詩)'로 번역해도 적절할 것 같다. 이 한국영화의 원래 제목은 '국제시장'이다. 윤제균 감독이 만든 영화이다. 이 영화는 1950년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 근대사를 한 평범한 사람 '덕수'(황정민 분)의 일생, 즉 1951년 한국전쟁 때의 흥남 철수 사건, 서독으로의 광부 파견, 베트남 전쟁 등을 통해 그리고 있다. 이 영화는 1,420만 관객이 보았으며 이것은 한국 영화 사상 두번째로 많은 관객을 동원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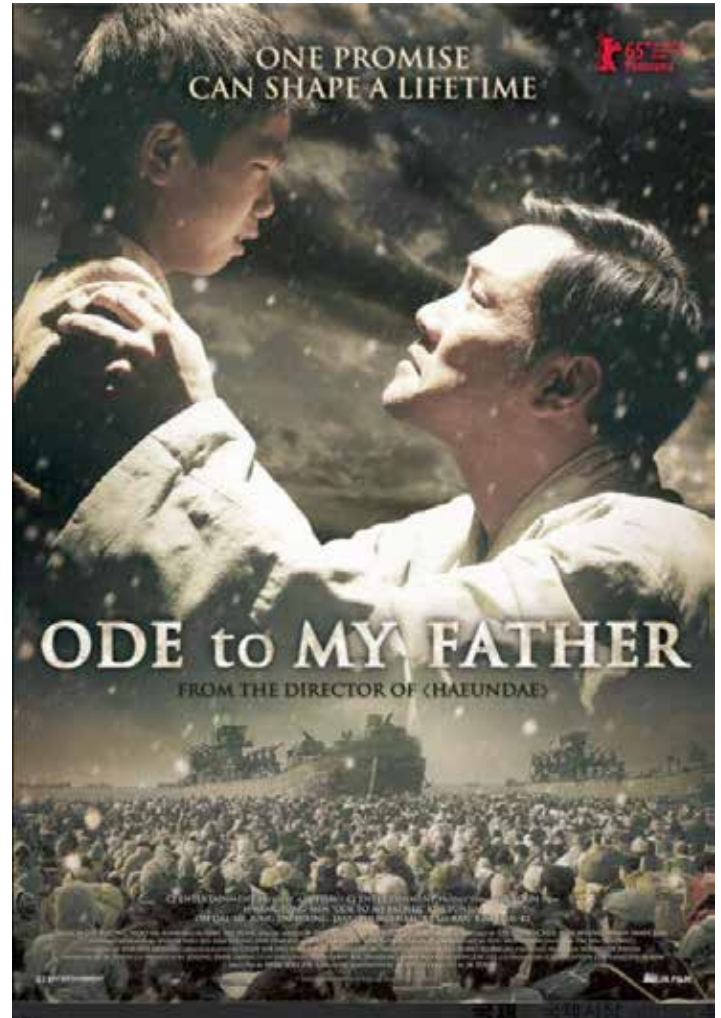
줄거리

한국전쟁 기간 중 1951년 흥남 철수 때 북한에 있던 많은 피난민들이 미해군 함정을 타고 부산으로 피란 내려오게 된다. 피란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는 과정에서 여동생 '막순'을 잃어버리자 아버지는 딸을 찾기위해 남게 되고, 만아들이던 '덕수'는 졸지에 가장이 되어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와서 피난민 생활을 하게 된다. '덕수'는 고모가 운영하는 부산 국제시장의 수입 잡화점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간다. 전쟁은 끝났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때에 남동생의 대학 입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이역만리 독일에 광부로 떠난다. '덕수'는 그곳에서 서독 파견 간호사 '영자'(김윤진 분)를 만난다. 그들은 귀국 후 결혼하게되고 두 아들을 갖게 된다. 가족의 삶의 터전이 된 가게를 지키기 위해 큰 돈이 필요 했던 덕수는 전쟁이 한창이던 베트남으로 건너가 기술 근로자로 일하게 된다. 그러나 베트콩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고 귀국하게 된다. 1983년 남북 이산가족 찾기 TV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미국에 입양되어 살고 있던 잃었던 누이동생을 찾게 된다.

제작

이 영화는 감독의 고향이기도 한 부산에서 대부분의 촬영을 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으로 인해 부산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남포동 등이 최근에 와서는 관광 명소가 되기도 했다. 독일과 베트남의 장면을 위한 해외 촬영지로 체코와 태국이 택해졌다. 이 영화는 아마도 노동법을 착실하게 준수하며 제작한 최초의 블록버스터일 것 이다. 한국은 영화 또는 예술 관계의 노동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낮은 임금과 초과시간 수당없이 과로에 시달려 왔으나 이 영화는 매주 하루의 휴일 제공 또는 일당 12시간이 넘지 않는 노동 조건등 기본 노동법을 잘 준수하며 제작 되었다. 이로 인해 제작비가 예상보다 훨씬 초과되었지만 촬영진은 더욱 열심히 작업하게되어 더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개봉



한국에서 '국제시장' 영화 개봉은 2014년 12월17일이였다. 첫 5일만에 150만 관객기록을 세웠고 2015년 1월 13일 천만 관객수 기록을 세웠다. 한국영화 사상 한국영화로는 2위이며 외국 영화를 포함했을때3위의 인기영화로 기록을 세웠다. 2015년 3월 1일로1,420만 관객을 모았다.

북미주에서의 개봉은 로스엔젤레스에서 2014년 12월31일에 시작 되었다. 첫 4일간에 6,000명의 관객을 모았다. 그후 1월 9일부터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보스턴, 시애틀, 토론토, 밴쿠버를 위시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43개 도시에서 개봉하기 시작했다. 2015년 2월에 열린 제65회 베르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비평

권위주위적 정권시기를 이상화 시키는 영화라는 평이라든지 근대의 산업화를 미화 시키는 보수적 색채의 영화라든가 하는 정계에서의 논평이 있었다. 이런 엇갈리는 비평에 아랑곳 없이

(16쪽으로 계속)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 #1

아래에 소개하는 한국법 자료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 발행한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에서 전재한 것입니다. 본 설명 자료 내용에 대해서 주 LA총영사관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법률 적용에서는 구체적인 사안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적 민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할것을 권하고 있습니다.(편집부)

1. 상속 및 유언

1-1상속 및 유언에는 어느나라 법이 적용 되는지

가. 개요

- 상속세에 관하여¹⁾ 어느나라 법을 적용할지는 피 상속인(사망자)²⁾의 국적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으로 다른 나라 법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나라의 법에 의합니다.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은 (1) 사망자가 사망 당시 살고 있던 국가의 법, (2) 부동산이 상속의 대상이 될 때에는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는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 한편, 유언의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른 법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 당시 살았던 국가의 법에 따라서도 가능합니다.

유언의 방식	
미국 거주 한국인의 유언	한국법 뿐만 아니라 미국법(주법)에 따라 유언 가능
미국 거주 미국인의 유언	미국법(주법)에 따라서만 유언 가능
한국 거주 미국인의 유언	미국법(주법) 뿐만 아니라 한국법에 따라 유언 가능

1) 누가 상속인이 될지, 상속인들은 얼마나 상속 받을지, 상속 포기는 할 수 있는지, 유언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말합니다.

2) 피상속인이란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속한 국적의 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나. 한국 국적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한 한국 국적 사람이 한국에서 살았던 경우 그 상속과 유언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상속인³⁾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지를 불문하고 상속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사망한 한국 국적 사람이 미국에서 살았던 경우 사망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에 관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으로 미국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미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 미국 국적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였을 경우

- 미국 국적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다만 미국 국적의 사람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유언으로 대한민국 법을 지정했다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 미국 국적의 사람이 한국에 부동산을 두고 사망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상속을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하도록 유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등기하려고 할 때에는 등기소에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따로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것이 없으므로 상속인은 우선 자신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인지 증명하여야 하고, 한국에는 community property⁴⁾ 제도가 없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지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미리 미국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추후 상속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속인이란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캘리포니아주는 부부재산관계에 있어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느 배우자가 취득자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결혼기간 중에 취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Indian School Rd

Americas Pkwy, I-40, Marriott Dr, Leyden Blvd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 (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ushi & Japanese Cuisine

651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72.1166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특한 재산에 대해서는 50/50 재산권이 인정됩니다.

1-2 상속제도 일반

가. 상속인과 상속분

-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모두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에서 정한 상속 방법보다 유언이 우선 적용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이 개시 됩니다.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그 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다르게 됩니다. 먼저 상속 받수 있는 상속인(아래 표에서 보는 높은 순위의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보다 낮은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순위 - 배우자 ⁵⁾ 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순위	상속인	예시
1순위	피 상속인(사망자)의 직계 비속	딸, 아들
2순위	피 상속인(사망자)의 직계 존속	부, 모
3순위	피 상속인(사망자)의 형제 자매	형, 동생, 자매
4순위	피 상속인(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숙부, 사촌

5)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재혼한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순위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순위	상속인	예시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함께 상속	배우자, 딸, 아들
2순위	피 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함께 상속	배우자, 부, 모
3순위	피 상속인(사망자)의 형제 자매	형, 동생, 자매
4순위	피 상속인(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숙부, 사촌

- 부모중 일방이 재혼을 한 경우에 전처 또는 전남편의 자녀가 별도의 입양 절차로 입양이 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부나 모의 재산은 그 자녀에게 상속 되지 않습니다.
- 상속분이란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는 비율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 여러 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공동상속이라고 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려면 자녀들은 출가 하였는지 장남인지 미국 시민권자인지 등과 상관없이 각자의 상속분은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받는 상속분보다 50% 더 받게 됩니다.

〈예〉피상속인(사망자)에게 아들 1명, 딸 1명이 있는 경우

아들과 딸의 상속분은 각각 1/2입니다. 자녀의 상속분은 장남, 차남 또는 결혼한 딸이나 미혼인 딸과 관계 없이 모두 같습니다.

〈예〉피상속인(사망자)에게 아들 1명, 딸 1명,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은 아들 2/7, 딸 2/7, 배우자 3/7이 됩니다.

나. 유류분

- 우리나라는 캘리포니아주등과 달리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사망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제3자 등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일부 상속인에게만 남긴 경우에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제3자 또는 일부 상속인에게 법에 정한 유류분만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을 정하기 위해서는 상속 재산⁶⁾을 어떻게 계산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상속 재산은 사망자의 사망 당시 재산, 사망자가 죽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것에서 사망자가 지고 있던 채무를 빼서 계산 합니다.
- ‘사망자가 증여한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 1년내에공동상속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 유류분은 위에서 확정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계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비속(딸, 아들)은 상속분의 1/2만큼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인이 증여,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사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6)상속 재산의 시가는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예〉 상속인이 배우자가 없고 장남, 차남이 있는 상태에서 갖고 있던 재산 1억원을 미리 장남에게 주고 사망한 경우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차남이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액수?
상속재산은 사망당시 재산(0원)+사망자가 증여한 재산(1억)으로 1억입니다. 차남의 법정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1/2로 5000만원입니다. 차남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으로 2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차남은 장남에게 2500만원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1-3 유언

가. 엄격한 법정주의

- 대한민국 민법은 5가지 유언의 방식을 법으로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모두 무효이고, 상속은 유언이 없었던 것처럼 집행됩니다.
-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기
자필증서 유언	직접 손으로 유언장 작성하기
비밀증서 유언	비밀로 작성하기
녹음 유언	녹음하기
구수증서 유언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이야기하여 대신 받아 적게 하는 방식으로 유언하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정증서 유언 및 자필증서 유언의 두가지 작성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 공정증서 유언

- 공정증서 유언이란 유언자가 공증인 7)에게 유언할 내용을 이야기하면 공증인이 대신 유언장을 작성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 2명이 필요하며,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공증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하여야 합니다.
- 유언에 참여할 증인 2명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유언 내용을 이야기 하고 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을 하기 위한 구비서류로 (1) 주민등록증, (2) 도장, (3)가족관계증명서, (4)재산별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7)공증인이란 한국법에 의해서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공증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다. 자필증서 유언

- 자필증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필증서 유언은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반면 사후 위조, 변조, 분실, 은닉 등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자필증서 유언의 모든 내용은 유언자가 반드시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하며, 컴퓨터, 타자기 등으로 작성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유언장의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1)자필로 하고 (2) 수정한

곳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목차	예시
유언내용	A토지를 장남 홍일남에게 준다
유언장 작성 연, 월, 일	2011년 1월 1일
유언자의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100동 1001호
유언자의 이름	홍길동
유언자의 도장, 날인	(인)(도장이 없는 경우 지장으로 해도 무방)

(예시) 유언장 8)

유언자 홍길동

1950년 1월 1일생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유언사항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대지 100평방미터 및 그 지상 가옥 50평방미터를 장남 홍일남에게 준다
2. 00은행에 예치(계좌번호 222-2222-222)되어 있는 예금 4,000만원을 차남 홍이남에게 준다.
3. 유언 집행자는 김 00 변호사로 지정한다.

2015년 1월 1일

유언자 홍길동 (인)

8)모두 손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마지막 (인)이라고 써진 부분에 도장이나 자장을 찍어야 합니다.

라. 유언집행

-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별도로 검인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이 아닌 나머지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즉시 유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유언장을 가지고 가서 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검인이란 법원이 유언의 내용, 유언증서의 형식 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검인은 사후에 유언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입니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 사망후 법원에 유언장을 가지고 가서 검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 검인 절차를 거친 후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음호에는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 부동산 상속시 필요한 서류, 상속세에대한 법을 소개합니다)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 (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곳과 시내산은 어디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3절 중에서)

유진웅 집사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것을 신비(神祕)하다고 한다. 한자를 보면 신(신적 존재 혹은 그와 관련된 것)을 나타내는 신과 숨길 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숨기셔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성경 속에는 이 세상의 어느 책에서보다 이러한 신비한 사건들이 더 많이 담겨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비한 사건들이 실제 일어난 사실(事實)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의사(神의史: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를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듯하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제대로 믿는 사람 드문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의 일화들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 중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 치부한다.

성경을 한 번 쯤은 읽어보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 속 이야기를 들어 본 사람이라면, 갈라진 홍해의 기적은 들어보았을지 하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찌면 너무 믿기지 않아 코웃음이나 치고 말았을 확률이 더 높을지도 모른다. 성경 속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아마 지금도 여전이 이 성경구절을 읽으며 코웃음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속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현대인으로서 믿기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어떻게 하면 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 B.C. 1450년경 갈라졌던 바닷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대한 잡족'들이 발로 밟고 걸어 건너간 이후 다시 원래상태로 회복된 지 벌써 약 삼천사백육십사년이 흘러버렸다. 그들의 발자국이라도 해변가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화석이 되지 않은들 그들의 발자국을 또한 어디에서 찾는단 말인가? 이런 이유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과 '중대한 잡족'이 건넌 홍해의 위치에 대해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경로 중 홍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정리하면, 1) 현재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시작되는 비터 호수(Bitter Lake)를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라는 학설과, 2) 시내반도의 서쪽에 있는 홍해를 건넜다는 학설이 있고, 3) 아카바만의 최남단 부분을 건넜을 것이라는 학설이 있고, 4) 아카바만의 중간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지점을 건넜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5) 심지어는 수에즈만을 건넜다는 주장도 있다. 그 밖의 주장으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건넜다는 홍해는 시나이반도 북쪽, 지중해변의 얕은 바다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한국성서고고학회는 1)의 주장을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넌 후 애굽(이집트)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하여 머물게 되는 일차 목적지인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도, 학술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시나이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산(모세의 산, Jebel Musa)을 시내산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림 1참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시나이반도에 위치한 산을 “시내산”으로 받아들이고 이 곳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곳으로 믿으며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우가 많다.



그림 1. 시내산의 대표적인 추정 위치 시나이반도에 위치한 모세의 산(왼편)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라오즈 산(오른편).
<출처 http://bibleatlas.org/region/mount_sinai.jpg>

그런데, 최근 10여년 사이에, 이러한 시나이반도에 위치한 “시내산”의 아성이 조금씩 도전을 받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속하는 지역인, 아카바만 동쪽에 있는 산(라오즈 산, Jebel Al-Lawz)을 시내산으로 보는 견해가 최근 세인들의 관심을 끌며 비중있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내산의 위치가 기존의 위치와 달라지면, 그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한 출애굽의 경로 또한 달라지게 되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이 출애굽의 신학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애굽 경로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견해가 확산되는 것은 한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2 참조).



〈그림 2.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출애굽경로와 시내산의 위치. 출처 [http://headwatersresources.org/images/Map-The-Exodus-from-Egypt-\(Exodus-13-19,-Numbers-33\).jpg](http://headwatersresources.org/images/Map-The-Exodus-from-Egypt-(Exodus-13-19,-Numbers-33).jpg)〉

한국에서는 2007년 김승학(한의사, 16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왕자이자 메카의 주지사였던 마지드 왕자의 주치의로 활동, 평택동산교회 집사)의 “미디안 땅의 시내산을 찾아, 그 7년의 기록 떨기나무”(출판:두란노)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김승학의 [떨기나무]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그 외의 종족들이 건넌 홍해는 아카바만에 있는 현재의 누웨이바 (Nuweibaa)와 라즈 알 하샤(Ras Al Hasha) 지역을 잇는 바다이며,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수르 광야를 거쳐 도착하게 되는 시내산이 아카바만 동쪽에 있는 라오즈 산 (Jebel Al-Lawz) 이 된다는 내용이 저자 김승학의 간증의 형식을 빌어 기록하고 있다. 이 [떨기나무]라는 책 뿐만 아니라, 김승학은 캐나다 미국 등 한국 안팎에서 여러 강연을 통해 [떨기나무]에서 다룬 내용을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많은 이들에게 알렸다. 특히,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여러 지역을, 그가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의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다니며, 출애굽 당시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부합하는 여러가지 증거를 수집하였다는 데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 중에 중요한 몇몇을 들자면, 새롭게 시내산으로 받아들여지는 라오즈 산 주변에서 발견된 다양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흔적들 (암각화, 멧돌, 돌절구, 토라스크를 모양으로 썬은 거대한 돌부더기들, 천막을 친 주거흔적, 등등; 그림 3참조)이 있다.

이렇게 시내산의 위치가 아카바만 동쪽에 있는 라오즈 산 (Jebel Al-Lawz)이 된다는 주장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홍해의 위치가 현재의 누웨이바 (Nuweibaa)와 라즈 알 하샤(Ras Al Hasha) 지역을 잇는 바다라는 증거로, 론 와이아트 (Ron Wyatt)가 이 지역 바다 속에서 발굴한 다양한 종류의 이집트 병거를



〈그림 3. 라오즈 산 앞에 있는 암각화. 손으로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 회막에 있는 물품 중의 하나인 일곱축대 그림이다. 그 밖에 다양한 고대 히브리문자가 새겨져 있다. 출처: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51>〉

들었다. 실제로 이 곳 해저에서 출애굽당시의 이집트에서 사용되던 병거들의 시대적 특징(다양한 수의 바퀴살이 사용된 시기는 이집트 역사상 출애굽 당시가 유일)이 있는 병거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김승학의 책 [떨기나무]가 출간된 이후 교계와 신학계에서는 “시내산은 어디에 있는가” 또는 “모세가 건넌 홍해는 어디인가” 등의 주제로 많은 감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나 이스라엘에서 연구하고 있는 다수의 성서지리학 및 성서고고학 학자들은 비신학자 출신인 김승학이 저술한 책의 내용을 비전문가의 간증서 정도로 폄하하며, 그가 다룬 많은 내용에 대해 고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한국성서고고학회는 김승학을 비롯하여 그의 주장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론 와이아트 (Ron Wyatt)를 비판을 넘어 비난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성서고고학회의 비판 혹은 비난은 “떨기 나무”와 여러 강연을 통해 소개된 여러가지 증거를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그들의 반박의 논거로 든 내용들 중에서는 오히려 최근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알려진 내용, 가령, 페트라가 가데스 바네아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더욱이, 그들의 비판이 여전히 김승학의 주장의 핵심에 대해서 고고학적 증거를 통한 비판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을 지지하는 성서고고학자들의 반론이 힘을 얻지 못하는 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김승학이라는 비전문가가 제시한 다양한 근거들을 성서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진실에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더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떨기나무]의 저자 김승학이 전하는 내용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접해 보시기를 바라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

특별기고

이야기로 풀어보는 한국교회사 II

초기 선교사들의 희생

1. 북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 (Horace G. Underwood)

언더우드는 1859년 7월 영국의 런던에서 태어났다. 기독교적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는 12세때 미국의 뉴저지로 이민을 와서 정착하였다. 화란 개혁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그는 화란 개혁신교회계통의 뉴브런스의 신학교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목사안수를 받게된다. 그가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몇가지 계기가 있다. 신학교 2학년때에 한미조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신문기사를 보고 조선을 품게된 것이다. 또한 신학교 시절 일본의 명치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올트만 (A. Altmann) 목사의 연설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조선의 죽어가는 영혼 1300만을 위해서 일 할 선교사 지원을 호소하는 연설을 들었지만 그는 당시 인도선교를 생각하고 있어서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화란 개혁신교회의 선교사 파송이 여의치 않자 그가 뉴욕의 한 교회의 초빙을 수락하는 편지를 보내려고 준비하였다. 우편함에 편지를 넣으려는 순간에 “조선(한국)에 갈 사람이 없느냐?” “조선(한국)은 어찌할 터이냐?”하는 음성을 들었고 이 소리에 언더우드는 도로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조선(한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언더우드의 삶이 바뀌는 순간이고 조선(한국)의 영적 흑암에 광명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화란의 개혁신교회에서는 선교사 파송의 계획이 없었으므로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선교부에 선교사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인도선교보다는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에게 한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때 그는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약혼녀에게 설득하는 일이었다. 아직 약혼녀에게 선교사로 나갈 계획을 얘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약혼녀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였으나 약혼녀는 선교에 뜻이 없었다. 오히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한국 선교를 지원하자는 수정제안을 한 것이다. 그러나 선교의 뜻이 확고한 언더우드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약혼녀로하여금 양자택일을 하게 한다. 결혼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약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든지. 결국 그녀는 파혼을 선택하였다. 언더우드 또한 깨끗이 단념하였다. 오로지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사명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라는 인륜지 대사를 포기하기까지한 언더우드의 아픔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닐 것이다.



최건영 장로

뉴라이프 선교교회
(덴버, 콜로라도)



1858년 2월 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서더튼에서 출생하였다. 1876년 10월 웨스트 체스트의 장로교에서 봉사하던 중 폴턴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으며 좀더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감리교회로 교적을 옮기게 된다. 1885년 1월에 뉴저지의 Drew 신학대학을 졸업했으며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함께 미북감리교 복음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이들은 이미 안면이 있는 상태였는데 1883년 10월 코네티컷 주 하트포드에서 열린 미국 신학교 연맹대회에 참가하여 서로를 잘 알게 된 것이다. 또한 한국에 들어갈때 같은 배를 타고가자고 약속한 것 같지 않은데 서로 같은배를 타게 되었고 그렇게 한국에 온 그들은 일생동안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 아펜젤러 역시 인도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파울러 감독의 요청으로 선교지를 한국으로 정하게 되었다. 알렌 의료선교사를 포함한 초기 선교사들을 보면 대개 중국이나 인도를 많이 선택하였는데 상식적으로 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선교사들의 한국행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결정되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한국에 들어온 아펜젤러 부부는 정동감리교회 (1895)를 세우고, 고종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배재학당(1885년 8월 3일)을 세운다. 이보다 앞서 인천의 내리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견은 없다고 본다. 1885년 4월 5일 제물포 항에 도착하여 약 45일간 체류하였으며 내리교회의 창립기념일은 1885년 7월 29일로 지켜지고 있다. 4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내리교회를 개척하였는지 더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인천 내리교회의 역사에는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내리교회시작, 한국의 어머니교회 출범”이라고 적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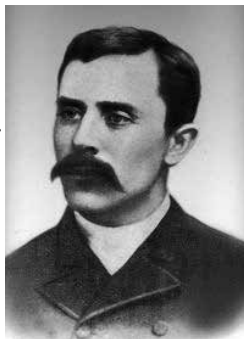


한국의 초기 선교사로서 많은 일을 하였으나 약 7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거두어 가신다. 성경번역일로 목포에 가다가 배 충돌 사고로 어떻게 앞에서 순직을 하신 것이다. 아펜젤러의 순직 직전의 이야기는 두가지로 전해지는데, 첫째로 그의 비서 조한규가 미처 선실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를 구하기 위해 침몰하는 배의 선실로 뛰어들었다는 이야기와, 둘째로 함께 동승한 이화여대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다. 분명한 것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침몰하는 위험한 선실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얼마전 일어났던 세월호사건과 참으로 비교되는 사건이다.

2. 미 북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Henry G. Appenzeller, 1902. 6. 12 사망)

3. 북장로회 의료 선교사 헤론 (J. W. Heron, 1890. 7.26 사망)

이 선교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될 뻔한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젊은이로써 가졌던 그의 뜻이 많은 감동을 주고있기 때문이다. 그는 1856년 6월 15일 영국에서 태어났다. 1883년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이라는 영예를 안고 테네시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그 학교의 교수요원으로 남으라는 요청을 뿌리치고 한국 선교사로 가장 먼저 신청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다음에 신청한 것이다. 그것은 그가 어느 부흥회를 통해서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코리아의 의료 선교사가 될 것을 결심하였던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1884년 봄, 그는 헤리어트 김슨과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선교사로 임명받아 1885년 6월 21일 코리아에 입국하였다. 원래는 제일 먼저 한국에 오는 것인데 선교 본부에서 한국에 난리가 났으니 (김옥균의 갑신정변) 좀 있다가 들어가라고 해서 선교사 신청은 먼저 했지만 한국 입국은 언더우드 보다 나중에 되게 되었던 것이다. “나의 사역의 목표는 ‘가장 위대한 신의 사’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에 있다.”며 “땅끝으로 가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국땅을 밟고 한없이 울던 존 헤론은 1887~1890년 제중원 2대 원장으로 봉사하면서 그 보다 먼저 조선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던 알렌에게 조선의 역사, 정세, 풍속부터 상감의 전의로서 역할에 이르기까지 궁금한 것들에 대해 배우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 휘장이 무겁게 내려진 이쪽으로 내어민 왕비의 손으로 맥박을 짚어보는 일, 구멍으로 내민 왕비의 혀를 찰색하는 일등 신기하고 난감한 일들을 듣게 되었다. 제중원 봉사는 물론이고 농촌지방으로 순회진료와 선교활동에 매진하여 의료선교의 바쁜 나날을 보내던 1890년 7월의 어느날 선교사 가족들이 휴가차 남한산성으로 떠났다. 스크랜턴 가족, 아펜젤러 가족, 언더우드 가족, 헤론 가족 등등. 그러나 헤론은 무리한 봉사로 피로가 겹쳐 이질이 발병되었다. 휴가를 며칠 앞당겨 끝낸 닥터 스크랜턴은 헤론을 정성들여 치료하였으나 차도를 못보았다. 선교사 계일이 다시 남한산성으로 가서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왔고, 서른넷의 헤론은 가족이외에 자신을 아는 한국 친구들을 불러달라고 부탁하였다. 따뜻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며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전파하는 설교같은 유언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났다. 1890년 7월 26일, 한국을 뜨겁게 사랑한 헤론은 푸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양화진 언덕에 안장되었다 양화진 묘소는 헤론의 죽음을 계기로 정해졌다고 한다.



4. 홀선교사 가족 (Hall Family)

한국에 온 모든 초기 선교사들의 희생은 누가 더 귀중하고 덜 귀중하다 할 것없이 고귀한 희생을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홀 선교사 가족을 택한 것은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거둔 대표적 사례로 생각되어서 소개하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닥터 셔우드 홀이 지은 “닥터 홀의 조선회상”에 자세히 나와있다. 원래 영어로 쓰여진 것인데 제목은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로 되어있다. 이민 2세들이 읽어본다면 홀 선교사 가족의 한국에서의 희생을 아는 것 이외에 당시 한국의 역사도 알 수 있어서 여러모로 이득이 되리라 본다.

(1) 북감리회 제인스 홀 의료선교사 (W. J. Hall, 1894. 11.24 사망)

제임스 홀 (James Hall)은 1891년 12월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평양개척 선교사로 일을 시작하였다. 아내가 될 로제타 선교사와는 병원에서 같이 일하면서 좋아하게 되었는데 고용할 로제타를 인터뷰하면서 첫눈에 반했다. 제임스 홀의 구애에 로제타가 거절하였는데 그것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에 와야하는데 제임스 홀을 좋아하면 조선에 오지 못하게 될까봐 그랬던 것이다. 그녀가 한국에 오려고 하였던 것은 한국의 여성들이 치료의 기회를 갖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로제타가 먼저 한국에 왔고 제임스 홀은 원래 중국으로 가려던 것을 사정사정해서 한국으로 바꾸었으니 사랑의 힘은 이토록 위대한 것인가. 한국에서 다시 만난 제임스와 로제타는 1892년 6월 27일 조선에서 병거 선교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것이 조선에서 최초의 서양 결혼식이었다. 1894년 평양으로 이주하여 병원, 학교, 교회사역을 시작하였다.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서울로 가지 않고 부인과 함께 부상자 치료에 헌신을 다하였다. 신변을 걱정한 감리교 선교부 서울 본부에서 귀환명령을 내렸지만 닥터 홀은 의사로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 하며 평양에 계속 머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치료하던 중 과로와 발진티푸스 감염으로 서울로 호송되어 치료중 사망하게 된다. 아내 로제타는 회고하기를 “그가 죽기전 마지막으로 내게 말하려 한 것은 그가 평양으로 간 것을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 일을 하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실 것”이라는 말을 하더라고 회고했다. 1894년 11월 24일 순직하여 양화진에 묻혔는데 로제타와 결혼 2년 5개월 만의 일이었다.



(2) 부인 로제타 홀

의사로서 약혼자인 홀을 한국 선교사로 이끌어 같이 의료선교를 베푼 사람으로 간단히 기억하기에는 너무 소홀한 대접이다.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면 이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실천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번은 화상을 입은 16세 소녀의 흉터를 치료하게 되었는데 자신과 동료선교사들이 피부를 이식하는데 30군데나 떼어서 이식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였다.

남편 홀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 미국의 윌케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게 된다. “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나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어요.” 하면서 오빠 (제임스 홀)이 다니던 글렌뷰엘 교회에서 언니를 보고싶어하니 한번 다녀가라는 내용이었다. 로제타는 해산도 할겸 미국으로 가고 거기서 따뜻한 환대를 받는다. 재충전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평양에서 기흥병원 및 점자 교육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한국



특수 교육의 효시가 되었다. 고려대의대 전신인 경성여자의학교 (수도여의대)를 설립하였으며, 에스더 김박(김점동)을 존스 홉킨스 의대에 보내 공부토록 하여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게 한다.

병원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동안 또 한번의 비극을 맞이하는데 딸이 풍토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것이다. 로제타는 남편옆에 딸을 묻으며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셔우드 홀과 한국에서 평생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하고 기도함. 그때 미국에 있을때 들었던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네가 이루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리며 선교의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졌다.

(3) 아들 셔우드 홀

조선에서 태어난 셔우드 홀은 조선 아이들과 같은 놀이를 배웠고, 그들처럼 행동했으며, 사고방식도 조선사람과 다름이 없었다. 2세때에 아버지 제임스 홀이 돌아갔으니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것이 그의 아픔일 수 있겠다. 13세 되던해에 원산의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 하디를 초청하여 평양의 남산현 교회에서 예배하던 중에 큰 감동을 받았다. “나도 저분처럼, 아니 우리 부모님처럼 의료 선교사가 되어 조선으로 돌아와 일하리라.” 하고 다짐하였다. 그가 자라면서 한국 최초의 여의사이며 누나격인 에스더 김박(김점동)가 폐결핵으로 죽자(1910), 그리고 한국인이 결핵으로 젊은이와 어린이들까지 죽는 것을 보고 의료선교를 결심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1926년 4월 19일 선교를 위해 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 이때 그는 의사 동료로서 부인인 메리언 선교사와 결혼을 한 상태였다. 해주 구세병원에 부임해 의료선교를 시작하였으며 또 해주 남학교인 의창학교의 교장직을 겸임하였는데, 엄청난 책임앞에 깊은 고독감과 공포심을 역누를 수 없었다. 이때 마음속 깊은 데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너는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다. 너의 주님이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 순간 그는 자신을 얻었고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한국 최초의 요양원인 해주 구세요양원을 설립하였으며, 결핵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실을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결핵협회를 창설하였다.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seal)은 납대문으로 도안이 되었는데 그것은 한국의 상징이며 결핵을 방어하는 성루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원래 최초의 도안은 거북선이었는데 일본의 반발로 납대문으로 바꾸게 되었던 것이다. 1939년 두번째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으나 일제의 종교탄압으로 상황이 걸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1940년 일본의 누명으로 3개월 징역을 살든지 아니면 천불의 벌금을 내라는 연도를 받는다. 당시 천불은 상당한 액수의 거금인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팔고 이것저것 모아서 천불을 마련하여 지불하고 병원일은 한국인 의사 문창모에게 맡기고 한국을 떠난다. 한국을 떠나기전 그를 괴롭혔던 헌병대 대장을 만나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일본이 그를 추방하자 인도로 가서 역시 결핵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실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나중에 캐나다로 귀국한다. 캐나다 밴쿠버에 정착해서도 한국 고무신, 장농등 한국 물품들을 집에 갖추고 살았다고 하며, 매일 한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한다. 잊혀질뿐 하였던 홀 부부를 대한 결핵협회에서 극적으로 찾아내 1984년 91세인 셔우드 홀과 88세인 메리언 홀을 초청하게 된다. 물론 초청에 맞게 성대한 환영도 하였으며 훈장도 수여하였다. 양화진의 아버지 제임스와 어머니 로제타의 묘역에 가서는 한없이 울었다고 한다. 그 또한 한국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였으며 1991년 98세로 소천하여 그 부모의 묘소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또한번 코끝이 찡하였던 것은 건강하였던 메리언 홀도 남편이 소천한지 5개월 후에 하늘나라로 가 남편과 가족묘역에 안장된 것이다.



사순절 기간 말씀 묵상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잡히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혹은 유월절)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요일1:1)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고 그분의 계명(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자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요일2:4). 뿐만아니라 말씀(계명)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은 거짓이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눅 24:44,45)

또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약 전체에 말씀으로 드러나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은 누구나 성경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연구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4~15)

바울 사도는 성경을 아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구원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나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바울 사도 당시의 구약성경을 지칭)을 통해 교육받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의 속박에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유월절과 이방인된 우리마저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리는 부활절은 결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절을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으로 여기며, 말씀을 꾸준히 읽고 연구하겠다고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유진웅집사)

뉴멕시코 앨버커키 한미침례교회 윤성열 목사

미국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는 1천여 미만 한인들이 살고 있는 뉴멕시코주에서는 제일 큰 도시(도시인구 55만명, 위성도시를 합치면 90만명)로 알려져 있다. 뉴멕시코 주에서 가장 오래된 앨버커키 한미침례교회를 담임하는 윤성열(David Sungyul Youn) 목사를 만나 보았다.

한미침례교회는 SBC(Southern Baptist Convention) 소속 교회로 1979년에 창립되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커뮤니티의 크고 작은 행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영감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서 수적은 성도(현재 그러나 미래는?)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나누고 있다고 했다. 뉴멕시코 주의 첫 한인교회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5년 동안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사랑으로 섬기며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뉴멕시코 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앨버커키 한미침례교회는 1979년 9월에 창립되어 1대 목회자 임세영 목사, 2대 이명수 목사, 3대 박인배 목사, 4대 신종은 목사, 5대 정문필 목사, 6대 임동섭 목사, 7대 조권능 목사, 8대 현재 윤성열 목사가 시무하고 있다.

윤 목사는 NYSKC(예배회복운동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에 주강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목회에 있어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NYSKC(예배회복운동)는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모토로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NYSKC(예배회복운동) 신앙 5대 강령은 첫째 New Life 영혼의 호흡-새벽기도(막1:35), 둘째 Yielding for Manna 영혼의 양식-성경애독(사34:16), 셋째 Salvation for One by One 성도의 열매-선교 및 전도(행4:12), 넷째 Keeping for Lord's Day 성령의 교통-주일 성수(출20:8), 마지막으로 Complete Offering 축복의 도리-이웃사랑(말3:10)이다.

윤 목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ROTC 20기로 특전사령부에서 통역장교를 지냈다. 그는 1982년 소위로 임관하고 광주 육군보병학교(상무대)에서 훈련 받던 중 고심 끝에 특전사에 자원한 것은 인생 최대의 명예로운 결단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렇게 잘 먹고도 20파운드가 빠질 정도로 고된 4



주간의 공수훈련과 담력 및 생존 훈련, 매일 아침 태권도와 특공무술 훈련, 80파운드 이상의 군장을 지고 주로 산악지역을 급속 행군으로 5일간 거의 자지 못하고 천리를 가는 악명(?) 높은 소위 살인적인 '지옥천리행군', 그리고 초추검으로 갖던 해상침투훈련 등이 그의 인생과 목회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 그는 '83년 한미연합사 독수리 훈련 육·해·공 합동계획단에 통역장교로 파견되어 미군 그린베레 팀들과 함께 근무했으며, 최정예의 사격수들이 겨룬다는 여단 사격대회에서 참가자 250여 명 중, 만점으로 당당히 특등 사수가 되었던 일들은 지금도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윤 목사는 1988년 필라델피아로 도미하여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SBC Seminary, Kansas City)에서 목회학 석사(M. Div.)과정을 밟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미주리 주에 있는 Knob Noster 침례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한 후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앨버커키 한미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NYSKC(예배회복운동 World Mission) 학회 멤버, Goshen Univ. & Theological Seminary 기획처장, 앨버커키 한인교역자연합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등 커뮤니티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교회 주소: 3315 Tower Road. SW Albuquerque, NM 87121

연락처: (505)242-8371, (505)331-9584

www.koreanabc.com, lionkingyoun@hotmail.com

(원본의 앨버커키소개에 숫자상 틀림이 있어 바로 잡았습니다. 편집부)

Ode to My Father(영화:국제시장) (7면에서 계속)

영화는 관객으로 부터 좋은 평을 받아가며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평론가 정재욱씨는 말하길 이런 정치권에서의 논평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를 더 선전 하는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고 했다.

(위키백과의 글에 추가해서 영화에 나오는 추억의 노래들을 소개한다.)

추억의 노래

#1 군세어라 금순아

한국전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설움과 애환을 담은

노래 '군세어라 금순아'는 흥남철수 때 헤어진 금순이를 주제로 한 가사에 곡을 붙여 1953년 현인이 부르게 되었다. 노래에는 '흥남부두', '영도다리', '국제시장' 등의 가사가 등장한다.

#2 노오란 셔츠의 사나이

1961년에 발표된 한명숙의 '노오란 셔츠의 사나이'는 국민가요라고 불릴 만큼 당대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국제시장>에는 '덕수'와 '영자'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영자'가 마지못해 '노오란 셔츠의 사나이'를 열창하게 된다.

#3 로렐라이

‘로렐라이’는 라인강의 전설을 담은 독일의 19세기 민요다. <국제시장>에서는 파독 간호사로 이역만리 타국으로 건너간 ‘영자’가 외로움과 고단함을 달래며 강변에서 홀로 ‘로렐라이’를 부르는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첫 눈에 반하는 ‘덕수’의 순수한 마음을 담아냈다.

#4 님과 함께

1970년대를 풍미했던 국민애창곡 ‘님과 함께’는 1968년 해병대 청룡부대에 입대하여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긴 남진이 제대 후 1972년 발표한 곡이다. <국제시장>에서

‘덕수’와 ‘영자’가 남진과 나훈아를 두고 어느 쪽이 더 인기가 있는지 입씨름을 벌일 만큼 70년대 두 사람은 한국 대중가요의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아이콘이었다.

#5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노래는 1983년 6월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의 주제곡으로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으며, 1964년 박순옥의 원곡으로 1987년 패티김에 의해 리메이크 되었다. <국제시장>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 나가 흥남 부두 철수 때 헤어진 아버지와 여동생을 애타게 찾는 ‘덕수’의 모습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의 노랫말과 어우러져 그리운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그려냈다.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gbjjyo@hotmail.com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505)-269-0691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주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8801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505)412-5420
hanaro21@hotmail.com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ean.org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Worship) §11:00 am (Sunday)
English Worship § 9:30 am- 10: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회장(505) 652-4627
§월모임:매월 세 번째주 일요일 오후 6:00 pm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 성령기도회, 성서입문: 매주 월, 수, 금
웹사이트: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순복음교회

이 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505) 873-4477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ABQ 87121 (505) 831-8812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Kelly Liquors #12 6631 Paradise Blvd. NW (505) 897-0088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 9021)	A-1 한식 코너 1410 Wyoming Blvd. NE (505)275-9021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주택융자 Loan Officer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Asia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503-7685)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부동산 Realtors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건축/페인트 Painting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치과 Dental Clinic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공인회계사 CPA	세탁소 Dry Cleaners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Asian Pear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 신장개업 2015.1.9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태권도 TaeKwonDo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리커스토어 Liquors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Kelly Liquors #1 9411 Coors NE (505) 897-9676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한의원 Acupuncture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종교 Church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화랑 Gallery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505-764-1900)
Samurai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p>하원/원예 Nursery</p> <p>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p> <hr/> <p>사진관 Photo</p> <p>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p> <hr/> <p>중재서비스</p> <p>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p> <hr/> <p>단요가 Dahn Yoga</p> <p>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p>	<p>0098)</p> <p>종 교 Church</p> <p>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505)-269-0691</p> <hr/> <p>병원 Clinic</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p> <hr/>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p> <hr/> <p>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p> <hr/> <p>건강식품 Health Food</p> <p>인성내출혈: Los Alamos (505-662-9681)</p>	<p>버나리요/벨렌/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p> <hr/>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p> <hr/> <p>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p> <hr/> <p>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p> <hr/> <p>산타페 Santa Fe</p> <hr/> <p>변호사 Law Firm</p> <p>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p> <hr/>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p> <hr/> <p>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hr/> <p>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p> <hr/> <p>종교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412-5420 www.santafekorean.org</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 #1 387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2244</p> <hr/> <p>Kelly Liquors #2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960</p> <hr/> <p>Kelly Liquors #3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206</p> <hr/> <p>클로비스 Clovis</p> <hr/> <p>종교 Church</p> <p>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p> <hr/> <p>백화점 Mart</p> <p>T-Mart 320 B West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p>	<p>식당 Restaurant</p> <p>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p> <hr/> <p>식품 Korean Grocery</p> <p>K's Oriental Food Store 1508 Thornto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p> <hr/> <p>화밍톤 Farmington</p> <hr/> <p>종교 Church</p> <p>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p> <hr/> <p>상점 Store</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p>라스베가스 Las Vegas</p> <hr/> <p>치과 Dentist</p> <p>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p> <hr/> <p>라스크루세스 Las Cruces</p> <hr/> <p>공인회계사 ACC</p> <p>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p> <hr/> <p>카페/선물 Cafe/Gift</p> <p>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p>	<p>종교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p> <hr/> <p>리오란초 Rio Rancho</p> <hr/>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p> <hr/>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p> <hr/> <p>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hr/> <p>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p> <hr/> <p>종교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412-5420 www.santafekorean.org</p>	<p>편집 후기</p> <p>2015년 3/4월호에는 법률상식의 기사가 많은 지면을 차지 했습니다. 교포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중에 한국법을 잘 모르는 분에게는 로스앤젤러스 총영사관에서 내어 놓은 한국법 가이드가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미국생활을 시작하지 얼마 안된 분께는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내어 놓은 미주생활 가이드북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p> <p>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역에 따른 주법의 차이와 구체적 사안의 차이로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이점을 유념하시고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복잡한 사안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편집부)</p>	<p>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5년 3/4월호 발행일 : 2015.3.15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인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p>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Sat 11:00am-9:3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292-8222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00-2:00 Mon -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12:30-8:00 Sunday



Prudential
AllStar, REALTOR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7001 Prospect Place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10

Office: (505) 888-1700

An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broker member of BRER Affiliates LLC. Not affiliated with Prudential. Prudential marks used under license. Equal Housing Opportunity.



A-1 한국식품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한식코너

Mon-Sat 10:00am-6: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1410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98112

Korean United Method Church In Albuquerque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505) 341-0205 www.kumcabq.com

Attach Stamp
우표를 붙인 후
반을 접어서 발송

To: